

## 제40회 방송의 날 축하연

언론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견제이며, 언론의 사명은 비판입니다. 언론이 가진 권력이 사회에 부정적이지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방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40년 맞은 방송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우연히 제 생일하고 맞아 떨어져 방송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력 생일이고 방송의 날은 양력으로 따져서 오늘입니다. 올해에만 방송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고 내년부터는 인연이 멀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퇴근해서 TV를 봤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대개 하루 2시간씩 방송을 듣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야말로 거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생활수단이자 생활환경이 돼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방송의 위력과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방송은 단순한 언론이 아니고 새로운 각광받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방송이 아니고 산업으로서 방송은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 인식의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항상 방송 종사인을 부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같은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전망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방송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장래가 밝을 것입니다. 직업인으로서 방송인에 대해 더불어서 축하드립니다.

**언론은 이미 가장 영향력 있는 직업군이며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방송, 통신 경제적 규모가 2007년이면 14조원 규모를 넘어서게 되고 올해가 8조가 넘었으니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방송 산업을 다음시대를 주도할 성장 주도산업으로 생각하고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해 방송 산업을 적극 육성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산업이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 5-6년 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이 되도록, 산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두 번째로 방송은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말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하느님이 말씀으로써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말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들 합니다.

2002년 한국 언론재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직업군 조사를 보면 언론인이 1위였고, 정치인은 5위였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방송은 말을 가공하고 배급하고 말을 지배합니다. 정보를 지배하는 것이 막강한 권력을 지내는 것입니다.

권력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신성한 것입니다. 권력은 과거에는 정치권력을 의미했는데, 정치권력은 권력자들이 전쟁이나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으로 생각하거나, 투쟁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보상으로 착각했었습니다. 권력은 소명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이익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제 민주주의 제도로 만들어 권력의 통제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하게 하고 균형을 갖추어내게 한 것이 민주

주의입니다. 정치권력과 언론을 비교해 보면 정치권력은 통제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으나 언론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 상호간 견제할 수 있는 것인지, 언론사 내부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문제제기하고 비판하거나 토론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을 가공하고 전달하는 분들이 보다 믿음 존중 미래의 희망 등을 가질 수 있게 정보유통을 해 주었으면..

개인이나 집단이 내부적 장치로 견제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독자의 견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청자는 조직되어 있지 않고, 시청자는 언론이 주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 잘 조직되기 어렵습니다. 언론이 야말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권력은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야기합니다. 축하말씀과 아울러 언론이 권력으로서 혹시라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 없도록 절제를 당부 드립니다. 기준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정당한 권리이고 어디까지가 절제되어야 할 한계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정확한 사실이다. 정확한 사실은 신성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비판입니다. 모든 집단에 대해 비판합니다. 비판은 잘하라는 비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대통령 자신도 비판을 받지만 그 비판이 감정적 공격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일을 바르게 하는 비판을 넘어 아예 일을 못하게 하는 비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칼날이 잘 서있는 칼을 지닌 사람은 칼을 쓸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냉정하고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일 잔칫날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건방지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잘 해보자는 뜻입니다.

말은 사람을 갈라 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옛날 시골 우물가에서 나오는

정보는 서로 사람을 헐뜯고 반은 싸우게 하지만, 백중날 막걸리 마시고 사물놀이 하면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말을 가공하고 전달하는 분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갈라 치거나 불신하게 하거나 증오하게 하거나 싸우게 하는 정보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존중,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정보유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지만 좀 더 지나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이쯤에서……. 저는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해 여러 방향에서 비판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남으로부터 환영받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풀이 죽어있었습니다. 가끔 방송도 대통령을 박살내어 억울합니다. 모른체 해주면 편한데 꼭 집어서 보도해 야속합니다.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방송의 날 초청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취임직후에 KBS 개국기념회 잔치에 가서 “방송이 없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 때문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청문회 시절 방송 매체 때문에 저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뜨기 국회의원을 대중의 영웅으로 만들어 진 것을 보고, 오랫동안 각인해 왔습니다. 정치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은 묻혀버리고 저만 크게 돋보였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해 각인 된 이미지가 두드러져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 ‘거봐라, 방송이 편파 보도하는 바람에 대통령에 당선시키지 않았느냐 ‘고 보도해서 방송이 난처했습니다. 저는 잘 견뎌나지만 방송사가 비난받는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오늘 경위를 밝혀 방송이 편파보도를 하지 않았고 그 편파보도를 통해서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오해가 있었거나, 그런 보도로 마음이 상했다면 오늘로서 씻어주십시오. 그때 같은 자리에서 방송사더

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느냐고 시비 않겠습니다. 방송사에 전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결심을 했고, 약속을 지켜오고 있고,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던 정치권력과 언론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 견제의 관계로**

KBS사장 임용과정에서 이사들과 사전에 조율하면 어떨까, 추천권과 임명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 권한은 무엇인지,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핵심적인 권한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조율한 게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평가받겠습니다. 앞으로 방송의 근거는 독립성이고, 잘하면 그때 한 일 소급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시비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당시의 발언이 부당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방송사에 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 해명해 가면서 여러분과 제 관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날 정치권력과 방송과의 관계는 적절치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민주주의 제도적 원리에 따라 기본적 원리에 따라 상호 견제하고 국가발전, 사회의 진보를 위해 서로 협력, 견제하는 관계로 잘 발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호간의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방송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인정해주고 대통령의 직무를 존중해주면 상호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잘하라고 부탁하나 드립니다. 잘하라고 꾸짖는 것은 달게 받는데 일을 오른쪽으로도 갈수 없고, 왼쪽으로도 갈수 없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비판은 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불안감도 갖습니다. 이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일요스페셜 참 좋았습니다. 밤늦게 다모를 봤는데 즐거리는 현실성이 없는데 영상도 좋고 설정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더 많이 칭찬해주면 3사간에 균형이 깨지니 그만하겠습니다. 어제 백만 불의 미스터리도 봤고, 야인시대도 즐겨봅니다. 다 좋지는 않지만 사나이의 용기와 배짱, 그리고 소신껏 살아가는 것과 의리로서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냥 좋아서 보곤 합니다. 방송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